

김세정 “경이로운 소문”, 김세정 성장시켜…다시 노래할 것”

상처많은 ‘악귀 감지’ 카운터 ‘도하나’ 역

결그룹 ‘구구단’→연기자로 변신 호평

“액션에 희열…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도

“롤모델 아이유·유준상처럼 되고 싶어”

“경이로운 소문”은 ‘도하나’뿐 아니라 ‘김세정’도 성장시킨 작품이에요.”

그녀 ‘구구단’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은 ‘경이로운 소문’에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OCN 주말극 ‘경이로운 소문’은 지난 24일 인기에 종영했다. 김세정은 악귀를 감지해내는 카운터 계의 인간 레이다 ‘도하나’로 변신, 주목받았다. 강렬한 액션부터 섬세한 눈물 연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매력적으로 소화하며 ‘김세정 인생작’을 만들어냈다.

드라마 종영을 한 후 서면으로 만난 김세정은 “이번 드라마는 이상하게도 끝이 났는데도 크게 슬프지 않다”고 했다.

“꼭 시즌2가 아니더라도 카운터들, 감독과의 인연은 앞으로도 꼭 이어질 거니까”라며 자신의 연기를 다한 이번 드라마에 만족감을 보였다.

‘경이로운 소문’은 OCN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김세정은 “사실 아직도 믿기지 않다. 노력과 행복이 맞는 순간이 많지 않는데 행복하게 노력한 만큼 결과까지 따라와줘서 더 기분 좋게 임할 수 있었다”면

서 “정말 감사하다. 욕심이 있다면 한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뿌듯한 모습이다.

김세정은 악귀를 쫓는 카운터(도하나)로 완벽 변신해 호평받았다. 아이돌에서 연기자로 폭을 넓히는데 성공했다.

김세정은 “도하나”를 어둡고 칙칙한 아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카운터를 앞에서만 무너지는 감정을 드러내며 아이가 되고 마는 하나는,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이고 겉으로만 센 척하는 어린 아이라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다”고 꼽았다.

실제 자신과 도하나와의 싱크로율은 ‘90%’라고 했다.

“하나는 상처받기 싫어 기대하는 걸 멈춰버린 친구였다. 사실 김세정도 그랬다”며 “어느 순간부터 상처받기 전까지의 기대와 꿈만 꾸고 있는 저를 봤고 그런 나를 어떻게 다시 깨울 수 있을까, 깨어날 수 있는 걸까 고민하던 때에 이 작품을 만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많은 실패와 실수가 아닌 긴 여정 중 과정이었고, 늘 그랬던 것처럼 꿈꾸고 두려워 말라는 것과 길고 힘든

지라도 언젠간 그 꿈은 이뤄질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조병규, 유준상, 염혜란, 안석환 등 극중 카운터들과 호흡이 적적 맞았다. 배우들간의 대화가 큰 힘이 됐다.

김세정은 “정말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찐케미’가 나온 것 같다”며 “선배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나 고민도 많이 들어주셔서 실제 관계도 점점 더 발전해 갔다. 그래서 배우들 간 케미가 더 자연스럽게 쌓였나 싶다”고 말했다.

조병규에 대해 “이유 있는 자신감이 없거나 중요하고 맛있는지 알려준 배우”라고 극찬했다.

유준상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면서도 꿈꿀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또 “염혜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한낱 일이 아닌 인간관계와 연결돼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다”며 “안석환은 멋지게 익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고 전했다.

액션 촬영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로 재미있었다고 했다.

“물론 액션 장면을 찍는 날은 대기도 길고 체력도 지치긴 하지만 그날 얼마나 제가 성공해낼지는 그날의 연습과 차분함, 습득력이 관가름을 내더라. 일단 가서 몸을 충분히 풀고 합을 안무 외우듯 외운 뒤 선생님 없이도 몸을 계속 움직였다.”

그는 “촬영에 들어가면 더 속감정을 놓렸다. 차분해질 수 있도록, 흥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끝이 나 있었다”며 “점점 할 수 있는 동작이 늘어갈 때마다 희열을 느꼈고 ‘아 액션 재밌다.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명장면으로는 ‘언니가 미안해’라고 말하며 연기했던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이 장면을 찍기 전 동생이 죽는 장면을 먼저 찍었다. 가족들이 죽고 동생을 붙잡고 우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찍고 나서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을 정도로 감정이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동생을 보자마자 리허설부터 눈물이 고였다”면서 “원래 생각했던 연기 스케치가 있었는데 오히려 자연스럽게 감정이 울컥울컥 올라와서 스케치보다 더 나은 연기를 할 수 있었다. 우리 하영이(동생)가 잘해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가족들도 함께 ‘경이로운 소문’을 지켜보며 응원해줬다. “사실 친오빠나 사촌들은 연기하는 제 모습이 어색하고 부끄럽다고 하더라. 주변에서 주는 피드백이나 전해주겠다고 분방 사수를 피했지만 다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엄마는 늘 냉정한 평가를 하시고는 했는데 이번 드라마는 정말 많이 만족하신 듯 했다”고 귀띔했다.

시즌2도 예고되어 있다. 김세정은 “제작에 들어가면 모든 배우들이 하고 싶은 것”이라며 “배우들을 포함해서 스태프들까지 모두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다 같이 하고 싶다”고 밝혔다.

롤모델로 그간 꼽아왔던 아이유에 유준상이 더해졌다.

그는 “어른으로 보면 유준상, 그리고 늘 말해왔던 아이유, 두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계속 꿈꾸면서 이뤄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유준상은 많은 꿈을 꾸면서도 그 꿈을 놓치지 않는다”며 “저는 꿈을 꾸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아이유처럼 많은 걸 도전하고 꿈꾸지만, 유준상처럼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 향후 계획을 묻자 다시 가수로 돌아간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시 노래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연기로 달리고 노래로 쉬고, 노래로 달리고 연기로 쉬고, 일을 힘으로 느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

그룹 ‘동방신기’, 엠넷 ‘킹덤’ MC·멘토로…4월 초 방송

모든 아이돌들의 롤모델

그룹 ‘동방신기’가 엠넷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킹덤’의 MC로 나선다.

25일 엠넷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그룹 7팀의 서바이벌이 펼쳐졌던 ‘로드 투 킹덤’이 이번엔 ‘킹덤’으로 돌아온다. 오는 4월 초에 방송될 예정이다.

새로운 ‘킹덤’의 MC로는 동방신기가 나선다. 데뷔 18년차를 맞이한 동방신기는 남다른 열정으로 모든 아이돌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팀이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MC로서 진행은 물론 직접 부딪히고 성장해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후배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멘토로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앞서 ‘로드 투 킹덤’은 보이그룹 7팀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실력으로 화제



가 됐다. 이번 ‘킹덤’ 역시 보이그룹들의 과감한 도전이 이어지는 무대로 최고의 킹을 가릴 예정이다. 더보이즈는 ‘로드 투 킹덤’에서 최

종 1위를 차지하며 ‘킹덤’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또 ‘2020 MAMA’에서 특별 무대를 꾸민 에이티즈와 스트레이 키즈도 ‘킹덤’ 출연을 예고했다.

로제 첫 솔로곡, 31일 블랙핑크 콘서트서 깜짝 공개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로제가 오는 31일 개최되는 콘서트에서 솔로곡을 깜짝 공개한다.

25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블랙핑크의 첫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더 쇼(THE SHOW)’에서

블랙핑크 두 번째 주자로 솔로곡 발표

로제의 솔로곡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YG 측은 “로제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은 이달 중순 모두 끝난 상황”이라며 “역대급의 제작비가 투입됐을 만큼 스케일이 큰 뮤직비디오여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후반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만간 앨범 발매 일정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다만 로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팬들에게 자신의 솔로곡을 무대에서 먼저 들려주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 이번 콘서트에서 먼저 공개하게 됐다. YG는 로제의 뜻을 존중해 고심 끝에 동의했

다고 밝혔다.

블랙핑크의 솔로 프로젝트는 2018년 11월 제니가 ‘솔로(SOLO)’로 출발했다. 국내외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쓴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최근 유튜브에서 조회 수 6억부를 넘기기도 했다.

제니 이후 2년여 만에 로제가 블랙핑크 두 번째 주자로 솔로곡 발표를 공식화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YG 측은 로제의 솔로곡에 대해 “감미로우면서도 소울 가득한 보컬의 장점을 고스란히 담았다”며 “기존 블랙핑크 음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시간으로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블랙핑크의 첫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 ‘더 쇼’에서는 로제의 솔로곡뿐만 아니라 정규앨범에 수록된 곡의 퍼포먼스도 최초 공개된다.

‘송가인 콘서트’, 설 연휴 극장 개봉…전국 메가박스

설 연휴에 송가인 영화 ‘송가인 더 드라마(THE DRAMA)’가 극장에서 개봉된다.

25일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에 따르면 ‘송가인 더 드라마’는 오는 2월 설 연휴에 전국 메가박스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에는 가수 송가인의 첫 번째 단독콘서트 ‘가인이어라’ 실황과 미공개 영상 그리고 송가인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겼다. 지난 2019년 다시금 꽃피운 송가인의 가수 인생을 돌아보는 영화다.

송가인 측은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2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는 콘서트장 못지않은 현장 감이다.

송가인의 콘서트를 직접 관람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영화관의 고화질 스크린과 음향으로 실제 콘서트장

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하인드와 인터뷰 대방출, 각종 예능, 인터뷰 등이다. 송가인이 지금까지 어디서도 밝히지 않은 콘서트와 정규 앨범 제작에 대한 솔직담백한 소회를 담았다. “내 송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예요”라는 영화 속 송가인의 말처럼 그의 진심을 들여볼 수 있다.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박지훈·이신영·강민아 출연

동명 웹툰 원작…“KBS 상반기 편성 논의”



박지훈과 이신영, 강민아가 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에 출연한다. ‘멀리서 보면 푸른 봄’ 측은 25일 캐

스팅 소식을 알리며 “KBS와 상반기 편성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멀

리서 보면 푸른 봄’은 청춘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20대의 고군분투를 담는다.

박지훈은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새내기 대학생 여중 역할을 맡는다.

강민아는 성실하고 우직한 노력과 대학생 김소빈을, 이신영은 전과목 A+의 수재이자 완벽주의자인 남수현을 연기한다.

제작진은 “설렘을 부르는 캠퍼스 로맨스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와 인물들의 다채로운 케미를 보여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스

방탄소년단, ‘BE’ 새 버전 다음달 발매…“팬들 사랑 보답”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새로운 버전의 ‘BE(Essential Edition)’를 내놓는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5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를 통해 ‘BE(Essential Edition)’의 발매 소식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매한 앨범 ‘BE(Deluxe Edition)’에 이은 새로운 버전으로, 오는 2월19일에 발매된다.

‘BE(Essential Edition)’는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와 ‘2021 그램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새 역사를 함께 써 내려간 전 세계 팬들에게 방탄소년단이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선보이는 앨범이다.

앞서 발매된 ‘BE(Deluxe Edition)’는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을 비롯해 ‘내 방을 여행하는 법’, ‘블루 앤 그레이(Blue & Grey)’, ‘스킷

(Skit)’, ‘잠시’, ‘땡’, ‘스테이(Stay)’, ‘다이너마이트(Dynamite)’ 등 총 여덟 트랙을 담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앨범의 방향을 잡는 기획 단계부터 분야별로 총괄 담당자를 정해, 작사·작곡은 물론 앨범 디자인과 구성, 콘서트 포토, 뮤직비디오에도 적극 참여했다.

뉴스